성남 대장지구 '명·낙전쟁' 재점화하나

'네거티브 과열' 비판 의식 팩트 체크 대응

지도부 "이재명 해명 존중한다" 일단 방어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성남시 대장지구' 의혹을 계기로 재점화 되고 있다.

한동안 서로 직접적인 신상 관련 공격을 피해 왔지만, 호남 경선으로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가시 돋친 말들이 다시 오가기 시작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설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몇 사람이 수 천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어떻게 공영개발이냐"며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한다. 수사해보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라디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감고 가자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MB는 감옥에 있다. 이걸 되풀이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중도하차한 정세균 전 총리의 표가 전무 무효처리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엄정중립이어야 할 당이 특정 후보에 경도됐다는 의심을 살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지도부와 선관위는 당장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설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캠프 좌장 역할을 맡은 5선 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며 "네거티브를 반복하고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총리 지명을 받자 전남지사 시절 부인의 그림을 비싸게 사 갔던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회수하면서 값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후보 측근 세 분의 석연찮은 죽음이 있었고, 그중에는 그림 회수를 담당했던 분도 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측은 '네거티브 과열' 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캠프 차원의 공개적인 공방은 아직 삼가는 분위기다.

이날 이낙연 캠프에 합류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이 지사가 전혀 문제없다고 소명을 한 만큼 당에서도 믿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당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일단 네거티브에는 팩트 체크 정도로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야당의 공세에 일단 이 지사를 엄호하고 있다.

아직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이 지사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엊그제 이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며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오히려 야당 의원 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느냐"며 "주장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 연루된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권교체, 어떤 일도 마다않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시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안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석 연휴 기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 안철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정치 입문 10년 차를 맞는 안 대표는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권교체를 위해 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제 초심과 각오는 10년 차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지금 어려운 국내 상황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터널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양당의 대선 경선은 이전투구"라며 "야권이 현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기댄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다수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의 무기는 도덕성이어야 한다"며 "야당이 도덕성 경쟁에서조차 앞설 수 없다면 야권은 필패"라며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인 야권의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득권 양당의, 상대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적대적 대결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며 "초당적 실용 중도의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대선기획단을 출범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다. 특히 대선 후보가 되려면 선거 1년 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 안 대표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는 해당 당헌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법률 조상에 대해 유권 해석을 해서 면밀하게 세부사항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부터), 안상수, 원희룡, 최재형, 유승민,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대권주자 TV토론 돌입 …경선 변수

내달 8일까지 6차례 진행…윤, 토론 데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TV토론이 16일 막을 올린다.

다음달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까지 모두 6차례 진행되는 TV토론은 경선구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두주자이면서도 토론 데뷔전을 치러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TV토론 경험이 없는 윤 전 총장은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의 토론처럼 당내 경쟁자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생각은 없다"며 "건설적인 정책 토론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직행한 윤 전 총장의 정책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집요하게 파고들 태세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4년 전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 장본인인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의 열망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겠나"라며 "홍 의원만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측도 "세월호 참사 등의 국면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리더십의 강점을 보일 것"이라며 "누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뚜껑을 열고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도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해명의 기회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굳이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지난 13일 안동대 간담회에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롯해 각종 발언 논란이 공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 강점이 있다고 자부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TV토론을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이재명 28%·윤석열 20%·홍준표 14%

홍, 상승세…보수진영 적합도서 윤 앞서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을 맹추격 중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도 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8%, 윤 전 총장은 20%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 다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3%포인트씩 오른 수치다.

홍 의원도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1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 중인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11%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2%를 받으며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5%, 윤 전 총장이 37%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홍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4% 대 38%로 역시 앞섰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홍 의원은 전주보다 6%포인트 급등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윤 전 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40%를 기록해 윤 전 총장(37%)에 우위였으나 홍 의원에게는 42% 대 38%로 뒤졌다.

홍 의원은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29%를 기록, 전주에 이어 윤 전 총장(24%)을 앞서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4%를 받으며 확고한 선두주자 흐름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19%를 받았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로 뒤를 이었다.

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이 지사를 택했고, 윤 전 총장(22%)과 홍 의원(12%), 이 전 대표(6%)가 뒤를 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